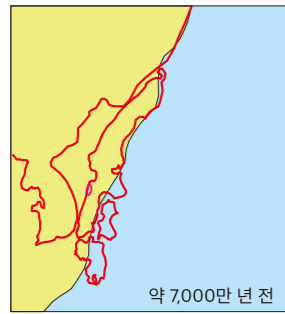


대륙에서 분리된 일본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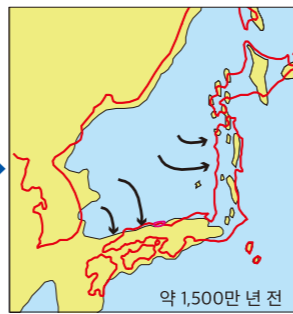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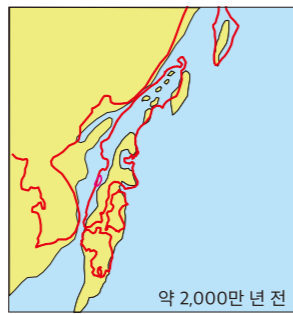
대륙 시대

오랜 옛날 일본열도는 아직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지표면에는 화쇄류가 흐르며 지하 깊은 곳에서는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 화강암 등이 생겼습니다.



일본해 형성 시대

대륙의 주변 부분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지가 갈라질 때 생긴 팬 곳에는 강이나 호수가 생겼고 그 주위에는 코끼리나 사슴 등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대지의 팬 곳은 더 커져 일본해가 되었습니다. 화산 활동은 많은 화산암을 만들어 냈습니다.



일본열도의 활동과 현재

일본열도의 형태가 현재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대지의 활동은 계속되고 여러 화산이 활동하며 동시에 해안에는 리아스 해안이나 단구가, 산에는 깊은 계곡이나 아름다운 폭포가 생겼습니다. 평야나 분지, 사구가 생겼으며 이윽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산인 해안 지오파크



일본열도 형성 후의 화산 활동에 의해 분출된 화산암과 그 후의 침식으로 생긴 폭포 (기리가타키 폭포, 신온센초)

겹쳐진 지층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노두



요로이노소데(가스미 해안)

과거 일본열도는 대륙의 일부였지만 약 2,000만 년 전경에 분리되어 일본해가 생겼습니다. 산인 해안 지오파크에는 일본해가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지질과 지형이 남아있습니다.



화강암 암석해안 (우라도메 해안, 이와미초)



대륙 시대의 화강암 (다이노하마 해변, 신온센초)



코끼리 발자국 화석 (다케노 해안, 도요오카시)



일본해 형성 초기의 화산암(용암) (시시노쿠치, 신온센초)



일본해 형성 후기의 화산암(암상) (다테이와, 교탄고시)



하천에서 일본해로 밀려온 모래가 조류나 바람에 의해 모인 사구 (돗토리 사구, 돗토리시)

풍요로운 생태계

다양한 지형 및 지질은 풍요로운 생태계를 키워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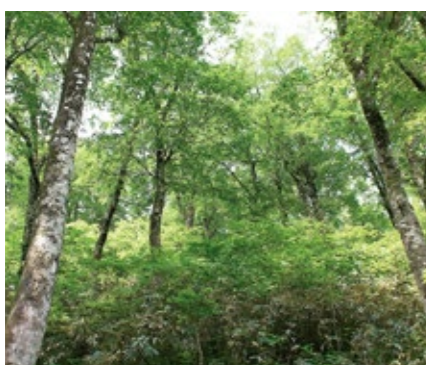
꼬리풀



황새



검독수리



너도밤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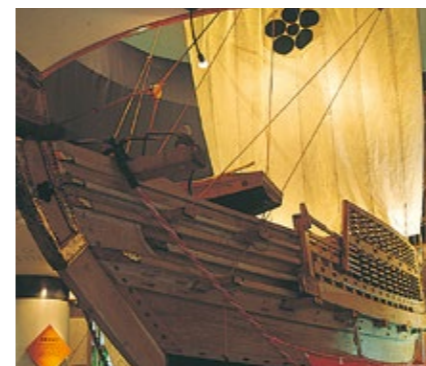
미나리아재비



일본 왕도롱뇽

산인 해안 지오파크가 가져온 문화와 삶

산인 해안 지역 특유의 다양한 문화, 산업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타마에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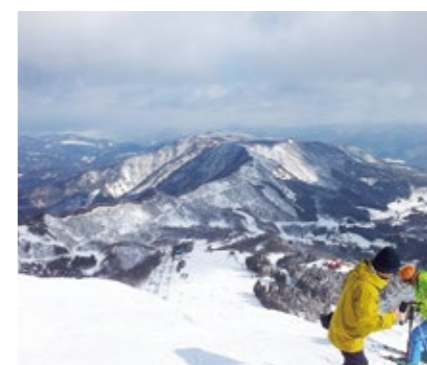
계단식 논



온천



어업



스키장



미식